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20 호



믿음은 모든 기적의 어머니

칭하이 무상사 / 2000. 5. 13. 한국 영동센터 (원문 영어)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나를 깊이 감동시킵니다. 그 믿음은 내 육신이 아닌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며, 그러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믿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마태복음 9장 22절)는 예수의 말씀도 그래서 나온 것이죠.

많은 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믿음은 선물이기도 하지요. 믿음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믿음을 갈구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야 해요.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오랫동안 온갖 부정적인 영향과 생각에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가 아주 어렵지요. 그에 비해 여러분은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이예요. 내가 여러분을 볼 때 행복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괜찮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쨌든 ‘나’라는 건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나를 믿거나 나를 추켜세우기 때문이 아니예요. 내가 행복한 건 여러분이 아무 문제없이 괜찮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호받고 행복하며 여러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많은 시간을 절약해 다른 ‘아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아직은 약한 다른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은 나를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좋아요. 믿음은 모든 기적의 어머니이니깐요. 설령 여러분의 스승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도 순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

훌륭한 거예요. 그건 내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지요. 난 아직 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스승님 웃음, 대중들 “스승님은 훌륭하세요” 라고 말하다)

내 말은 내가 좋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면 그건 100% 여러분이 좋다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해요. 내가 좋은지 여부는 아마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나를 믿는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겁니다. 그건 확실히 여러분에게 좋은 거지요.

개과천선한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기억하나요? 오랫동안 영적 가르침이나 열망도 없이 지내던 한 부부가 늙어서야 스승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몰랐지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 가서 앉아 기도하며, 누구든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을 스승으로 삼겠다고 신께 약속했어요. 매마침 도둑이 하나 나타났지요. (모두 웃음) 도둑이 노부부를 꼼짝 하지말고 있으라고 하자 그들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신이 나타났죠. 그건 그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신이 여러분 내면에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신을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아주 순수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좋던 나쁜던, 여러분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믿는 거지요. 이런 믿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며, 그건 여러분에게 이 생과 다음 생에 주는 축복이며 선물이지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순수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행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분을 선물받은 것은 큰 영광이며,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앞표지 안쪽 / 스승님 말씀

믿음은 모든 기적의 어머니

2 다채로운 이벤트

프랑스/ 남아프리카/ 미국 캘리포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포모사/ 홍콩

6 전세계 식당

10 스승과 제자사이

우주적인 경축행사 - 칭하이 데이 7주년을 기념하며

13/ 29/ 34/ 35 지혜어록

부처와 마야의 차이/ 매 순간의 중요성/ 지상을 천국으로 바꾸자/
단순한 사람들이 깨닫기 쉽다

14 골라뽑은 수행문답

마야는 우리 자신의 게으름이다

15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수행 개념은 논리적이여야 한다

16/ 36 스승님의 농담

감언이설/ 똑똑한 부인/ 오해/ 다용도 파리채

17 핫 토픽

유전자 변형 음식보다 나은 선택 - 사랑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마련된 음식

20 당신은 모르실 거야

진동의 비밀

22 시

칭하이 데이 - 스승님께 바치는 기쁜 날/
시후를 추억하며 - 사랑하는 스승님께 드리는 시

24 수행일화

춤추는 화초/ 또 굶었군!

25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신의 안배/ 최고의 피로 회복제

26 이야기 세상

깨달은 스승의 존재에 감사하며

28 사제지간의 편지

하레 칭하이, 청정대해

30 사랑의 실천

포모사/ 홍콩

33 무상예술

천의와 천상의 보석에 숨겨진 메시지/ 긍정적이 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뒷표지 안/ 무상예술

칭하이 무상사의 최신 보석 디자인

뒷표지 밖/ 영혼의 고향

새로 나온 DVD & 비디오 안내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20호

출판일자 : 2001. 11. 18.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식



프랑스의 새로운 영성 등대

[알자스] 프랑스 동수들은 최근 단체명상 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독일과 스위스에 접경한 프랑스 동북부의 알핀 지역에 한 농장을 사들였다. 높이 솟은 산봉우리를 뒤로 한 이 농장은 출입이 용이하고 주변에는 작지만 번창한 상업 시가지가 하나 있을 뿐이다.

금년 1월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동수들은 새 입문자들과 함께 이 농장에서 선이를 열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산자락에 위치한 이 아름답고 편안한 휴양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반짝이는 하얀 눈과 화창한 날씨로 이 곳 센터는 명상하기에 이상적이었다. 대도시에서 온 우리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경험

이었다. 신선한 공기로 우리는 마치 히말라야에 있는 듯이 느껴졌으며 히말라야에서 신과 진리를 향한 스승님의 용감하고 굳은 구도의 길에서 스승님이 겪으셨을 일들이 떠올랐다.

명상 후 휴식시간에 우리는 1999년 스승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되새겨보았다. 그 해, 스승님은 유럽 순회강연 전 스위스 발센에 들르셨는데, 그때의 행복한 추억들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진리를 나누고 더욱 자주 선행사를 갖도록 고무시킨다. 우리에게 평화와 조화, 사랑 속에 명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남아프리카 소식



분열을 딛고 화합으로

[케이프 타운] 케이프 타운은 1999년 스승님의 중동과 남아프리카 순회강연의 최종지역이었다. 스승님은 이 도시에서 대중강연과 선을 개최하신 후, 1999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린 세계종교집회에 참석하셨다. 세계적인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 집회의 개회식에 참가하신 스승님은 다음날 희망봉 센터에서 강연하셨다.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뉴스잡지 108호를 참고하기 바람)

개회식이 열린 역사적인 케이프 타운 제 6구역은 1960년대 중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로 세계의 주목을 산 곳이다. 1960년과 1980년 새 이곳 주민 66,000여 명은 강제이주를 당하고 그들의 집과 가게

는 파괴되었었다. 케이프 플랫의 지저분한 곳으로 이주한 그들은 가족, 친구들과 분리되어야 했다. 제 6구역의 모든 흔적을 없애고자 지역명도 조네블로옴으로 바뀐 이곳에는 몇몇 교회와 회교사원만이 이곳 공동체의 행복했던 한때를 상기시켜 줄뿐이었다.

역사적인 2000년 11월 26일 일요일, 타보 음베키 남아공 대통령은 이 지역을 이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증하는 토지공사장 서명 서류를 제 6구역 수의개발 위원회장에게 전달했다. 강제이주를 당했던 사람들의 절반은 이곳에 돌아와 재개발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재정보상을 받았다.

일요일, 강제이주를 당했던 많은 전(前) 주민들이





휠체어를 타고 혹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들의 자녀와 손자손녀와 함께 모라비안 교회에 이르는 언덕까지 행렬을 이루며 기쁨을 나누었다. (스승님은 세계종교집회 강연 후 이곳에서 새로운 구도자들을 입문시키셨다.) 오랜 친구들이 해후했으며, 많은 이들이 강제이주 후 35년 동안 만나지 못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오래전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맘껏 눈물을 흘렸다. (최고령 주민은 100살이 되었다!)

1999년 12월 1일 세계종교집회 개회식 연설에서 스승님은 케이프 타운과 그 곳 사람들을 특별히 축복

하시며 사랑과 이해, 평화와 함께 하는 신의 위대한 뜻을 받아들이길 모두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올리셨다.

이 역사적인 기념식이 있는 지 약 1년이 지나 이제 제 6구역의 이전 주민들이 공식허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것은 20년이 넘는 끝없는 투쟁 끝에 얻은 행복한 귀환이었다.

남아프리카, 특히 케이프 타운을 축복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음악과 시의 센터 기념 행사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의 리틀 사이공 지역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음악과 시 센터가 1월 27일 음력설과 함께 개관 1주년을 맞았다. 기상대에서는 비를 예보했지만, 스승님의 축복으로 남부 캘리포니아의 짹짹한 햇살과 함께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개관 이후 음악과 시 센터는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 가르침과 인도주의적 활동, 예술 재능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조용히 자리잡아 왔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문의하고 더 배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센터의 도서관을 찾아왔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채식에 하고 관음법문을 수행하게 되었다.

100명이 넘는 동수들과 손님들이 센터의 개관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맛있는 채식요리들을 즐겼다. 많은 손님들이 평온하고 조화로운 기운이 감도는 센터를 떠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VIP 손님 중 도통민씨는 일본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 문학박사로서 일본어-베트남어 사전과 다른 많은 책을 출간했다. 리틀 사이공 라디오 방송국의 일본 주재 특파원이기도 한 그는 일본에서 스승님과 스승님의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음악과 시 센터의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손님들

훌륭한 활동들을 알게 되었고, 이번 음력설에 미국을 방문하는 중 시간을 내어 센터에 들르게 되었다. 그는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과 스승님의 “무자(無子)시”를 새해선물로 받고 매우 행복해했다.

그 날 방문객들 중에는 또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엔터테인먼트 팀이 제작하는 스승님의 TV프로그램인 “예술과 정신세계”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는 유명한 베트남 가수인 시푸 씨의 미망인인 녹란 여사도 있었는데, 그녀는 스승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과 남편이 얼마나 스승님을 그리워했는



지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 부부는 1998년에 참석한 “음악으로 하나되는 평화의 세상” 자선 콘서트 공연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녀는 토요일마다 “예술과 정신세계”를 시청한다고 했다. 녹란 여사는 특히 2000년 7월 남편이 타계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의 조문을 받고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스승님과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그녀는 시푸 씨가 스승님을 대단히 존경했으며, 이 세상의 많은 이론들 중에서도 스승님의 명상법이 최고의 법문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녹란 여사는 지금 채식주의자이다. 그녀가 기념식장을 떠나기 전, 우리는 시푸 씨에 대한 특별한 호평이 담긴 추모 비디오 테이프를 선물했다. 비디오를 받아든 녹란 여사는 대단히 감동하며 뜻깊은 새해선물에 대해 스승님께 감사를 표했

다.

우리 프로그램을 매주 시청하는 중국인 부부도 이번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랫동안 진정한 스승을 찾으면서 그 남편은 나름대로 명상을 해왔다. “예술과 정신세계”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에 친숙해진 그는 관음법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음악과 시 센터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부부는 여러 권의 견본책과 뉴스잡지를 가지고 떠났는데 다음날 남편은 LA센터를 찾아와 방편법을 배웠다.

작년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과 시 센터를 어둠 속을 비추는 하나의 빛줄기로 여겨왔다. 스승님의 새해인사와 함께 우리는 음악과 시를 통해 대중에게 스승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센터의 1주년 기념식과 음력설을 기념하게 되어 행복했다.

미국 플로리다 소식



플로리다의 칭하이 데이 기념 행사



[플로리다] 2001년 2월 17일과 18일, 플로리다주 각지의 동수들은 중부 플로리다의 한적한 교외에 모여 영적인 정화와 칭하이 데이

7주년을 기념하는 선이를 개최했다.

쌀쌀한 저녁 날씨에도 불구하고 속속 도착한 사형사저들의 열의는 분위기를 고조시켜 지난 국제선의 행복찬 기억을 떠올리게끔 했다.

선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 조지아주의 동수들도 토요일 새벽 선에 합류하여 행사를 더욱 기쁘게 했다. 명상홀로 쓰일 대형천막 등 선행사의 제반 사항들은 이미 준비된 상태였다. 선 기간 동안 스승님의

축복으로 선에 참가한 동수들은 포근한 일체감을 느끼며, 바비큐를 비롯한 맛있고도 이국적인 다양한 채식요리를 맘껏 즐길 수 있었다. 일요일에 끝난 선이 행사장은 동수들의 합심으로 신속히 치워져 금새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동수들은 플로리다 센터의 다음 단체명상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성실한 명상, 영적인 축복, 스승님의 비디오 상영, 맛과 사랑이 넘치는 음식 등 플로리다 선이는 동수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남겨 주었다.



아르헨티나 소식

많은 영혼들이 해탈의 첫걸음을 내딛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동수들은 중부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 남동부의 바히아 블랑카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비디오 세미나를 수 차례 개최했다.

코르도바는 고대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도시로, 이 지역 사람들은 열렬하게 우리를 맞이했다. 세 차례의 세미나는 이곳의 한 사저가 빌린 채식식당에서 열렸는데, 그 사저는 다른 많은 일을 안배해 주기도 했다. 동수들은 코르도바 시내를 다니며 전단을 배포하는 동안, 건강식품과 자연식품 상점이 많은 것을 보고 이 지역 사람들의 식생활의 변화에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다.

첫번째 세미나는 스승님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자장으로 축복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질의응답시간이 끝난 뒤 식당 주인을 포함한 많은 참석자들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다음날에는 “업장을 소멸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역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우겠다고 신청했다. 명상이 끝난 뒤 단체명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새 입문자 한 사람은 즉시 자기 집에서 주간 명상을 갖자고 제안했다. 셋째날, 살아 있는 깨달은 스승과의 만남에 대한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토론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이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를 전에 방편법을 배운 한 사저는 영적 수행으로 벌써 더 건강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미나가 열렸던 식당의 주인은 영적인 양식을 체험하게 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새로운 수행자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두 달 안에 또 다른 모임을 개최하기로 했



부에노스아이레스 동수들이 아르헨티나 중부와 남동부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한 비디오 세미나를 개최하다

다. 몇 주 뒤 동수들은 바히아 블랑카로 갔다. 방편법을 수행하는 그 곳의 예비입문자들의 도움으로 아르헨티나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이 아름답고 고요한 도시에서 두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번째 세미나에서 한 여성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다음 날 열린 두번째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은 친지나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이 완벽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아직 완전채식은 못하지만 방편법을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불교신자인 한 중년신사는 이 지역에 구도자들이 늘어나게 되어 기쁘다며 관음법문 동수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길 희망했다. 방편법을 신청한 한 젊은 태극권 사범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올 때마다 센터를 방문하고 싶다며 센터 주소를 묻기도 했다.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입문자들은 이번의 짧은 세미나 여행을 통해 수행의 여정에서 예고 없는 헌신과 상호간의 격려를 체험하게 되어 행복했다.



호주 소식



한적한 시골에서 축복 받은 선을 개최하다



[브리즈번과 노던 리버스] 브리즈번과 노던 리버스 두 지역 센터의 연합으로 님빈의 조용한 시골 농가에서 선삼이 개최될 때, 동수들은 스승님의 축복이 가득한 신년 축전을 전해 받았다.

선에 참석하면 모두 많은 이로움과 축복을 받는다. 한 사형은 이번 선으로 스승님의 위대함에 대해 더욱더 알게 되었으며,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로운 보살핌 아래 우리 생활의 세세한 부분들이 최상의 안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부 새 입문자들을 감동시키고 고무시킨 한 어울락 사저는 선 참가자를 위한 맛있는 식사 준비를 위해 저녁에는 일찍 들어가 명상을 하고, 낮에는 주방에서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맛있고 멋진 요리를 준비해 헌신과 근면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서양 사저들에게는 어울락 요리 실습을 받아 가정과 센터를 위해 채식요



리 기술을 발전시킬 새로운 재료와 아이디어를 소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신(新) 바이런 만 센터의 입문자들은 처음으로 참가한 이번 선에서 스승님의 가피를 절실히 느꼈다면서 다시 한 번 선을 개최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모든 동수들은 무한한 “사랑의 바다”의 축복인 스승님의 사랑과 은총에 푹 잠길 수 있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채식 식당

푸에르토리코, 산 주앙 El Lucero de Salud (건강으로 인도하는 빛)

주소: Ave. Americo Miranda #1160
San Juan, Puerto Rico 00921, USA

전화: (787) 273-1313/ 팩스: (787) 749-0205

웹사이트: www.alimentosvivos.com/ 이메일: lucero@coqui.net

건강식품 상점은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식당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업함.

전세계 채식 식당에 대해 더 많은 소식을 알고 싶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com/vegetarian/veg.html>



포모사 소식

활기차고 열렬했던 팀워크 훈련캠프

[타이충] 2000년 여름, 포모사 전 센터는 관음가족 어린이들에게 다채롭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평후에서 합동 캠프를 열었다. 캠프가 끝난 후 동수들의 열렬한 호응으로 포모사 연락인들은 모임을 통해 스승님의 교리와 재미를 결합시킨 보다 많은 행사를, 시후를 비롯한 각 센터에서 개최하여 어린이들의 영적, 육체적 성장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포모사 센터는 청소년에게 각 지역 센터의 장래 단체 활동을 위한 봉사대로서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관련 동수들에게 훈련받고 싶은지 물었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포모사 전 지역의 열렬한 청소년 동수들이 타이충 센터로 왔다. 그들은 봉사와 헌신의 마음가짐으로 이틀간의 훈련 과정 중 첫 단계에 임했다. 수업은 팀 활동 기술과 연습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아동 심리학과 감정이입, 자신감 훈련과 같은 것들도 다루어졌다. 이 훈련의 목표는 어린 동수들이 남을 돕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세우고 잠재력을 개발하고, 인성과 극기심을 높여 장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탄탄한 기초를 쌓기 위한 것이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모든 참가자는 수업에 열중했다. 동수들의 지도와 훈련으로 그들은 전에는 미



포모사 전역의 청소년 동수들이 타이충 센터의 팀워크 훈련 캠프에 참가하다



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많은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참가자들 모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으며, 한 참가자는 “그 훈련을 끝내고 영어발표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 캠프에서 배웠던 ‘용감하게 자신을 깨는’ 정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었어요” 하고 체험을 얘기해 주었다. 그 동수는 다른 이에게 봉사하기도 전, 그 훈련을 통해 자신만의 이로움을 얻은 것이다.

영적인 삶의 새로운 시대

[까오슝] 2001년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까오슝 세계 무역센터에서는 남 포모사의 가장 큰 도서 박람회인 까오슝 국제 도서 박람회가 열렸다. 20여 개국 수백 개의 출판사들이 수많은 책을 전시한 이번 박람회는 장춘슝(長俊雄) 행정원장이 개막을 선포했다.

도서 박람회의 수많은 출판작 중에서 36개국어를 지



까오슝 국제 도서 박람회의 스폰서들을 초대한 가운데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다



원하는 스승님 소개 DVD인 “사랑의 길을 걷다”는 박람회장의 A구역에서 매우 많은 주목을 끌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에 의해 발매된 이 발달된 시청각 제품은 요즘 영적 정보에 대한 대중의 높은 흥미를 반영한 것이었다.

커다란 TV스크린으로 상영된 스승님의 강연은 많은 방문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어요”라고 한 천주교인은 말했다. 스승님의 그림에 오랫동안 눈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 작품들이 지성의 범위를 초월한다고 확인했다. 어떤 방문객들은 막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즉각 깨닫는 열쇠’ 시리즈를 몇 권씩 구입했으며, 수많은 구도자들이 견본책과 뉴스잡지 뿐 아니라 스승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며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로 수행에 관한 질문을 해왔다. 그들은 우리 동수들로부터 스승님의 가르침과 세계 각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 활동에 대해 듣고 나서 스승님의 관용과 자비에 대해 크게 찬탄했다. 이들 방문객들은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갖고 기분 좋게 자리를 떴다.

입문자들이 낭만적이고 예술적으로 디자인한 우리 부스는 방문객들에게 평온함과 고양된 기운을 전했으며, 다국어로 된 간행물과 섬세한 만세등, 그리고 영

감이 넘치는 그림은 고요한 초월의 영적 미학을 선사하여 한편으로는 상업적인 도서 박람회에 참신함을 더해 주기도 했다.

까오핑 동수들은 스폰서의 초빙을 받아 도서 박람회의 개막식에서 화려한 민속춤 공연을 선보였는데,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와 앙코르를 받았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관음사자의 주관으로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 스승님 소개 비디오와 2000년 5월 5일 타오웬 경기장에서 하신 스승님의 강연 테이프가 상영되었으며, 쏟아진 많은 질문에 흡족한 답변이 잇달았다. 이 성공적인 세미나는 2001 까오슝 국제 도서 박람회에 영성의 빛을 한층 빛내는 자리가 되었다.



까오슝 국제 도서 박람회에 참가한 우리 단체 코너에서 영성을 빛낸다

스승님의 발자취를 따라

[시후] 2001년 2월 18일 일요일, 포모사 입문자들은 시후에 모여 칭하이 데이를 앞당겨 경축했다. 경축 행사 내내 다채로운 초롱과 장식 리본으로 꾸며진 센터에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 했다. 행사를 위해 입구에 특별히 준비된 대형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중국어 2행시가 쓰여졌다.

“늘 새롭고도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라, 대양의 음률이 우주의 소리 너머 높이 솟구친다 (清新自在天下觀, 海韻耀月宇宙音)”

스승님의 법호와 관음이 대구를 이룬 이 시는 금빛으로 빛나는 소보리와 작은 천사들을 종이로 오려붙인 배경 위에 쓰여졌다. 정문에서 지그재그 다리까지 반얀 나무들에 일렬로 걸린 포스터에는 1990년 이후 스승님의 전세계적인 자선활동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관련 당국과 기관에서 온 감사장들이 포스터 하단에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스승님의 무한한 자비심과 관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읽는 이들에게 스승님의 행로를 따를 것을 상기시켜 주고 용



기를 주었다. 왜냐하면 수행은 가부좌를 하고 앉아 열반을 즐기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우리의 사랑이 전세계의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 아침에 입문자들은 대나무 숲에 모여 세계평화와 자신의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 기도하는 단체명상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칭하이 데이 기념식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행사 사회자의 소개에 의하면, 2월 22일 칭하이 데이는 스승님의 오랜 기간에 걸친 인도주의적 원조활동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스승님의 이타적인 신성한 소명의식을 기리기 위해 1994년 미국 중서부 6개 주 지사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었다.

이 날, 타이난 합창단은 “정말 위대한 어머니”와 “어린양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네”, “Sing hallelujah to the Lord” 그리고 “Go! Go! Go”와 같은 노래를 불러 모든 입문자들과 손님들을 이끌었다. 합창단은 또한 매우 특별한 수행가곡을 두 곡 불렀는데, 그 조화로운 음률과 독특한 리듬 그리고 음악적 감성의 흐름으로 모든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우리는 이 신실한 음률들이 다음과 같은 내면의 메시지를 스승님께 전해 주길 기원했다.

“우리는 당신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포모사 입문자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스승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갈망을 표현하다



시후의 칭하이 데이 경축 포스터에는 스승님이 세계 각지에서 벌이신 최근 인도주의적 활동들이 보고되어 있다

홍콩 소식

칭하이 데이 파티

[홍콩] 홍콩 입문자들은 2월 22일 단체 명상 후 수행가곡과 훌륭한 음악 연주로 간단하면서도 경건한 파티를 열어 칭하이 데이를 기념했다. 이 최고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협주, 하모니가 독주는 앞서 공연된 새 수행가곡 두 곡과 마찬가지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이렇게 해서 파티는 조화롭고 행복하게 끝마쳤으며, 입문자들은 이제 관음법문 수행을 통해 아름다운 내면의 소리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음악적 재능 또한 발전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주적인 경축행사

칭하이 데이 7주년을 기념하며

정산원 사저 / 포모사



태양

1994년 5월 22일 스승님은 타이베이 아시아월드 호텔의 국제선철을 위해 포모사에 돌아오셨다. 1만여 명의 입문자와 비입문자들이 스승님을 뵈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개석 국제공항에 모여들었다. 모두들 흥분해 있었고 특히 포모사 입문자들은 열광 그 자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스승님은 당시 세계 순회강연 중이셨고, 포모사를 떠나신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이었다. 공항 안팎으로 인파가 가득 차 스승님이 높은 가마에 앉아 계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주최측은 거의 즉각적이라 할 만치 빠른 속도로 동(東) 타이베이의 국부기념관 잔디밭 광장에 2차 집회를 준비했다.

스승님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인사를 하거나 농담을 건네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깨우침을 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다. 한 사저는 스승님이 그녀 옆에 오셨을 때, 태양이 갑자기 황금빛 광채를 내뿜는 것을 보곤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가까이 있던 동수들이 하늘을 쳐다보자, 정말 태양이 찬란한 황금의 구(球)로 변해 다이아몬드처럼 광채를 발하며 무아지경의 어린애가 춤추듯 움직이고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깊은 통찰력이 담긴 스승님의 인사말씀을 기쁘게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사람들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잔디밭 곳곳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스승과 제자들의 이 상견례는 수십 분이 걸렸다. 그리고, 스승님

이 그곳에 계신 동안 태양은 계속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스승님이 마이크를 통해 우리들에게 “굿바이”라고 작별인사를 하는 순간의 뚜렷이 생각한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다시 하늘을 보았다. 맑소사! 어떻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던 걸까? 태양의 빛은 맨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리 만큼 밝게 빛이 나고 있었다. 아열대 지역인 데다가, 5월이면 햇빛에 눈이 상해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날 나는 몇 번이고 5월의 태양을 뚫어지게 응시하곤 했던 것이다!

그 날 태양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밝았지만, 다만 그 빛이 좀더 부드러워 눈이 다치지 않은 것이다. 어쩌면 태양은 스승님이 돌아오셔서 가슴 벅차던 우리들의 기쁨과 열광에 감동 받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스승님의 회합의 자리에 그 나름의 축복으로 강렬한 햇살을 누그러뜨린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때 태양이 나와 여러분 같은 동료수행자들의 일원처럼 느껴졌다!



달

1998년 5월 한국 영동센터에서 국제선육이 있었다. 선이 끝난 다음에도 스승님은 제 날짜에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던 대륙 입문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영동센터에 머무르셨다. 이 또 한 번의 기회로 영동센터에 남아있던 우리는 스승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엄



청난 축복을 받았다.

스승님의 생신인 5월 14일, 스승님은 저녁시간에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하셨다. 스승님은 모닥불을 피우고 저녁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셨다. 이 아름다운 밤에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려 바삭거리고 있었다. 편안하고 로맨틱한 시간이었다. 문득 합창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금세 동참해 입문자들의 활기찬 음성에 분위기가 한껏 고양되었다. 어울락 동수들이 노래할 때는 스승님도 즐거이 함께 하였고, 우리들은 허밍으로 노래를 따라하거나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즐겼다.

“달도 스승님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군요!” 나는 무심결에 중국에서 온 동수 몇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설마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달도 스승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계속 쳐다보지는 마세요. 달님이 수줍어할 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차례차례 대기 속에 흘렀다. 우리는 가끔씩 달을 쳐다보았다. 정말 달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한 시간이 넘도록 달은 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모여 있었고, 모두들 만족스러워하자 스승님은 잘 자라는 인사를 하시곤 차에 올라 처소로 돌아가셨다. 차가 사라지는 몇 초 동안 나는 묘한 기분에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달의 위치가 바뀐 것이다! 꽤 오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가 갑자기 30도 가량이나 아래로 하강하여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거리를 한꺼번에 옮겨간 것 같았다. 달이 스승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있었다는 내 생각이 맞았던 것이다.

• 환영합니다!(歡迎光臨)

만약 관측기기로 이 놀라운 순간을 촬영했다라면

과학자들은 분주해졌을 것이다. 인간의 지식과 물리학 이론으로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파악할 수 없었을 테니까. 자연과학은 이런 현상을 해명하지 못하겠지만, 인류의 풍부한 감정과 상상력을 고려하는 인문과학은 어느 정도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이 백(李白)을 생각해 보자. 그는 종종 ‘술잔을 들어 달을 청했던’ 인물이었다. 태양과 달, 별, 산과 강, 비, 눈 등과 같은 자연적 풍경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신이나 영적인 이해와 결부되어 언급된다.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꼭 신화인 것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옛 사람들의 실제 경험이었을 것이다.

중국사람들은 축하를 하거나 기념 축사를 할 경우, 태양과 달을 비유하는 표현을 자주 쓴다. ‘해와 달이 함께 축하한다(日月同慶)’는 표현도 그 중 하나인데, 예전에 나는 이 인사말이 너무 진부하고 틀에 박힌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억지로 꾸민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표현은 결코 쓰지 않았다. 그러나 스승님이 중국어로 “환영합니다(歡迎光臨- 직역하면 당신의 빛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셨을 때, 나는 순간 그 표현의 아름다움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 말은 오랫동안 일상생활에서 쓰여왔고, 상점에서 손님을 맞을 때 인사말로 보통 쓰이는 표현이었다. 이 말의 진정한 정신은 여러 세기를 지나면서 상실되었고, 그 표현은 생명력을 잃고 조악해져 버렸다. 나에게 있어서, 이 인사말에서 생명력을 되찾게 해준 분은 스승님이셨다. 이 일로 해서 나는 내 차에 사람들이 타거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전과는 다르게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진심으로 사람들을 맞고 인사를 한다. 그런 표현 뒤에 있는 진실과 아름다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해와 달이 함께 축하한다”는 인사말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이제 그 표현의 기원과 뜻을 명백히 알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온 우주를 품을 만치 큰 마음을 가졌던 듯 싶다.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이 표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주

입문을 한 후 우리는 태양과 달 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다. 시카고 국제선이 끝난 다음날인 1994년 2월 23일의 일이 생각난다. 나를 포함한 타이베이 입문자그룹은 비행일정의 변화 때문에 선행사 후 시카고에 이틀 간 더 머물러야 했다. 덕분에 우리는 하루간 시카고를 여행하는 일정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선행사와 칭하이 데이 기념행사에만 참석했던 참이라 매우 흡족한 상태였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곤 날씨 정도였다. 우리들은 아열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 눈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국제선 출발에 앞서 시카고에 눈보라가 예상된다는 국제뉴스 보도나 기상예보에 크게 신경을 곤두세웠고, 겁을 먹은 몇몇 입문자들은 결국 선행사를 포기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누가 예상했으리오.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리던 때부터 시카고의 일기는 겨울날의 화사한 햇빛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쾌청해져 걱정했던 눈이나 강한 바람도 없었다! 이 급격한 일기변화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우리는 정말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다음날이면 북미의 도시 시카고를 떠나게 되자 우리는 눈이 오면 로맨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눈이 오면 무척 아름다울 텐데!” 많은 동수들이 이렇게들 말하며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구를 했다.

사실, 기념행사 때 아름답게 눈이 내린 장면을 볼 기회는 있었다. 이른 새벽 모임장소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대지가 은빛으로 뒤덮인 광경을 보았다. 눈은 몇 인치 두께로 꽤 많이 쌓여 있었고 우리들 모두는 흥분을 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많은 동수들이 달빛 아래서 눈을 가지고 놀았다.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에, 반쯤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다.

이렇게 이미 내린 후의 눈을 보았으나, 버스를 타

고 가면서 시가지에서 녹고 있는 눈을 보니 별로 로맨틱하지는 않았다. 한 사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지 못하고 타이베이로 돌아가게 되면 무척 유감스러울 것이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말에 모두들 공감하며 우리는 스승님께 눈이 좀 더 오도록 기도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우와! 잠시 후 버스 차창 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눈은 계속해서 두텁게 지표를 덮었다. 버스가 시 외곽의 큰 호수를 지나고 있었을 때는 뾰족한 지붕들과, 눈에 덮인 도로변의 침엽수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에 나오는 눈 내리는 성탄절을 연상시켰다. 동수들 모두는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시간이 지나 시내로 돌아갔을 때 동수들은 보행자들이 강한 바람과 눈 때문에 힘들게 걷는 모습을 보았다. 몇 시간 동안 계속 내린 눈이 그들에게는 결코 로맨틱한 경험이 아니었음이 분명했다. 여행을 인솔하던 사저가 “충분히 눈 구경을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눈이 오도록 기도하지 말기로 해요”라고 제안했고, 모두들 즉각 그 말에 동의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몇 분 후 눈발이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지 않아 눈은 완전히 멎히고 날씨는 다시 화창해졌다.

물론 우리들은 눈 구경을 목적으로 시내 여행을 나섰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다시 눈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우주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은 멋지고 놀라운 경험이었다! 때때로 동수가 아닌 친구들과 이런 놀라운 느낌을 나누고 싶어 노력해 보기도 했지만, 이해와 지혜의 차이 때문에 나 자신을 표현할 말을 찾기 어려웠던 적이 태반이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마음 속 깊이 강렬하게 새겨졌다. 영화나 뉴스 보도에서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끔찍하고 속수무책인 모습이 비쳐질 때마다 나는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북받쳐 올라오는 어떤 감정으로 인해 소리내어 이렇게 외치고 싶어진다. “구세주는 여기에 있다. 그가 누구인지 나는 안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시다. 그분은 기꺼이 여러분 모두를 돕고자 하신다!”



평상심

살아있는 참스승의 입문을 받은 사람은 의식의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가장 깊숙이 자리한 두려움이 사라지며, 우주는 더이상 낯설고 측정할 수 없는 힘이 아니게 된다. 입문자는 스승의 영원한 보호를 받으며, 이 보호력은 무소부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는 항상 편안하다. 물론, 자신을 단련시키고 성장하여 그 차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시적 어려움이나 장애들은 견뎌야 한다. 그러므로 일상사의 골칫거리나 어려운 일이 가끔씩 생겨도 의식 내면에 깊은 두려움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주적인 스승의 제자로서 우리들은 종종 스승님의 명호에 대고 기도를 한다. 스승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 하지만 우리들은 또한 ‘동의한 적이 없는’ 안배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승님이 내적, 외적 가르침을 통해 모든 신의 안배는 최선이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때때로 실수들을 통해 배우고, 인내하고 침묵하며 기다리면서 신의 뜻이 차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분명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기엔 앞서 불평하며, 우리의 애고, 즉 ‘영적인 냄새’를 모든 것에 확연히 풍기게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입문자들은 평상심의 영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자주 이 점에 대해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일이 있고, 사람들마다 기념할 만한 날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서는 스승님, 칭하이 무상사가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렇기에 칭하이 데이는 온 우주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며, 이 날이야말로 “해와 달이 함께 축하한다”는 표현이 가장 알맞은 때라고 생각한다. 이번 칭하이 데이 7주년을 맞아 스승님께 드릴 것이라곤 이 글뿐이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고뇌를 거두고 우리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 스승님, 감사합니다!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칭하이 데이 모음집을 볼 수 있습니다.
칭하이 데이의 유래와 지난 수년간의 멋진 칭하이 데이 경축행사 프로그램들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chinghaiday](http://www.Godsdirectcontact.org/chinghaiday) (미국, 영어)

지혜어록



부처와 마야의 차이

칭하이 무상사 / 1990. 10. 19.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힘이 있으나 사랑이 없다면 마야가 됩니다. 부처와 마야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둘 다 힘이 비슷하지만, 부처에게는 사랑이 있고, 마야에게는 그것이 없지요. 마야는 매우 이기적이고, 무엇이든 요구만 하며 빼앗아가 버립니다. 비난만 할 뿐, 너그럽지 않지요. 부처 역시 꾸짖기는 하나 관대함이 있습니다. 부처는 꾸짖어야 할 때는 꾸짖어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을 깨달아 진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관대해져 사람들이 지나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모든 것을 갖춘 존재이지요.



마야는 우리 자신의 게으름이다

칭하이 무상사 / 1997. 12. 25. 미국 워싱턴 DC의 국제선사 (원문 영어)

질문: 마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오, 아니오! 차라리 신에 대해 설명하겠어요. 마야는 단지 우리 자신의 게으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굴복하고 노력하려 하지 않지요. 너무 힘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내면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선한 일을 해야 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귀찮게 뭐 하려? 잠이나 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야지요. 그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물론 장소라든지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새 거기에 말려들어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건 모두 우리의 게으름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거죠. 우리 자신의 진보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보면 보상받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어서서 뭔가를 성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죠.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참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지만, 일어서게 되지요. 마침내는 일어서야 합니다. 마야는 우리 자신의 게으름이므로, 마야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인(聖人)이며, 육체로 화한 신이기 때문이지요.

마야는 단지 우리가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가끔 치려야 할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 훈련하는 것 외엔 달리 공부가 없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마야는 없으며, 시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 이런 저런 일을 하기로 맹세한 것으로요. 그리고 우리의 길에 놓인 장애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강하며 얼마나 단호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야는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마야인 것이지요!

질문: 방금 스승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때로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면, 전 강력하게 장애물을 돌파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제게 “그러지 마, 서두를 필요 없어! 신이 그 일을 처리하실 거야”라고 해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고 되는 대로 방치하게 되지요. 스승님은 해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어떻게 아시나요?

스승님: 좋아요. 당신이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신이 할 겁니다. (박수) 최선을 다한 다음이라면, 신이 나머지를 해야 하니까요. 만약 당신이 이미 마쳤다면 좋습니다! 그럼,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하겠죠. 당신이 이미 최선을 다했다면, 더 이상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렇다고 신에게 일을 미루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무언가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지요. 물론 여러분은 신에게 떠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순 없지요. 그건 너무 파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극복할 도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고 하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달려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서 서둘러 피하세요! 커다란 미친 코끼리가 우릴 쫓아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서 피하세요.” 그러자 이 ‘수행자’는 “나는 신을 믿습니다. 신은 코끼리의 내면에도 존재하시지요.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코끼리가 돌진해 와서 그를 죽였지요.

그는 코끼리의 내면에 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그에게 경고를 해준 사람들의 마음에도 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좀 더 정상적인 신보다 그렇게 미친 신을 믿은 걸까요? 이진 정말 비논리적이지요.

다른 인도 이야기를 해주지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인도 전역을 휩쓰는 가운데 아직 전염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곳 사람들에게 백신주사를 접종하기로 했지만, 그곳의 일부 사람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백신주사가 뭔지 몰랐기에 강력하게 거부했지요. 결국 정부와 자선단체, 몇몇 의사들은 한밤중에 그들 집에 몰래 숨어들어가 강제로 백신주사를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병에 걸리면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전염되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백신주사를 맞지 않으면, 방역 작업을 시행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여러분 모두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 온 집안 식구들에게 억지로 백신주사를 놓았습니다. 물론, 그 가족들은 매우 완강히 거부했지요. 그래도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주사를 놓아야 했기

에 백신 접종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가족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가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종교 때문에 백신접종을 거부했소. 그래서 있는 힘껏 저항을 했는데, 당신들의 완력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소. 어쨌든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이제 당신들은 우리 손님인데, 우리 집에는 대접할 만한 것이 오이뿐이요.”

인도의 풍습에 따르면, 어떤 집을 방문하든, 손님은 신이기 때문에 주인은 마치 신을 대하듯 손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온갖 것을 꺼내 음식을 공양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사들에게 그들이 가진 전부인 물과 오이를 대접했던 겁니다. 그는 의사들에게 자신들의 종교관은 신이 누군가 아프길 원할 때 그가 아프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신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

하며, 자신이 한사코 백신접종을 거부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의사들은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매우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의 믿음은 일방통행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신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고 누군가 아프게 되는 건 신이 원해서라며, 신의 생각을 자기 맘대로 결정해 버렸어요. 하지만, 신은 또 이 의사들을 보내 그들에게 백신접종을 하라는 뜻을 알렸습니다. 이쪽 논리가 보다 분명하지 않나요? 왜 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을 거부했지요? 신이 정말로 그에게 “난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테니, 넌 백신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아플 것이다”라고 말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이 의사들을 만들었다는 건 다른 생각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신



수행 개념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칭하이 무상사
1996. 2. 19.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은 아프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의사들을 안배해 백신주사 등을 놓게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수행자들은 지나치게 고지식하거나 완고해선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에 맞춰 행해 나가면 되지요. 아프면, 명상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에 알맞은 약을 구해 먹어야 해요. 약이 없다면 당연히 기도에만 매달리고, 그 후 신의 안배에 따라 그 뜻을 따르면 됩니다. 신이 안배한 의사가 여러분 집을 방문했는데도 거부한다면, 그가 신이 보낸 게 아니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게 다 신의 안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 의사가 왔다는 건 나름대로 신의 안배였을 텐데, 왜 고집을 피워 문제를 일으켜야 합니까?

이 얘기 외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말로는 쉽지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그 가족들처럼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곤 합니다. 그들이 백신주사를 맞지 않고 나중에 병에 걸

려 죽어가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면, 틀림없이 그들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신이 왜 자신들을 구하지 않는지, 왜 그들을 돌보지 않아 병에 걸리게 했는지 불평할 것입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신속하고 능률적이어야 합니다. “난 신을 믿어, 그러면 됐지, 뭐!” 하는 식으로 자신의 게으름이나 고집을 합리화해선 안 됩니다. 만약 그 말대로라면, 왜 번거롭게 음식을 먹고 옷을 차려 입나요? 여러분이 신을 믿는 걸로 모든 게 다 괜찮다면, 여러분이 별거벗어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못 볼 것이며, 신을 믿는 걸로 다 된다면, 배도 고프지 않겠지요. 그건 정말 비논리적입니다! 자기 편리한 식으로 말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달리 행동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말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다고 해놓고 신을 온갖 방패막이로 삼아 신에게 모든 탓을 돌립니다. 그러니 수행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원문으로 오디오와 비디오로 즐기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0/st1.htm>



감언이설



칭하이 무상사 / 1999.10. 4.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한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어요.

“오 내 사랑! 당신이 없으면, 천지만물이 어둡고 음산해지며, 먹구름 몰아치고 비바람 광풍이 거세게 불어 닥칠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아서 당신만 내게 있어준다면 따뜻한 태양이 뜰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어요. “지금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기를 예보하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음식보다 나은 선택 사랑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마련된 음식

칭하이 무상사와 그 제자들간의 대화에서 발췌
2000. 5. 10. 영동 국제선 (원문 영어)

스승님: 여러분이 식물을 사랑하면 식물은 잘 자랍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이지요. 스코틀랜드의 한 농부가 자신이 기르는 감자들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나중에 그의 감자들은 크기가 매우 컸다는 뉴스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흥미로운 일로 싸구려 속임수로 눈앞의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있는 일입니다. 정성을 다해 정말 사랑하면, 식물은 매우 크게 자랄 겁니다. 미아오리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거주자들에게 약간씩의 땅을 준 후 여러 가지를 키워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승이 심으라고 했으니 마지못해 대충 심어놓고 잘 돌보지 않아 작물들이 모두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었지요. 이에 대해 그들은 “우리는 자비심을 가져야 하니까 벌레들이 먹도록 그냥 두었어요”라며 변명을 했지요. 그 작물들은 잘 자라지도 않고 잎도 연약해서 벌레들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가꾼 사람들의 작물은 매우 빨리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었지요. 정말 그랬어요.

내 경험을 얘기하자면, 미국 뉴욕에 있었을 때 나는 돈이 없어 절에 살았습니다. 내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 거기에는 이만한 작은 식물이 있었어요. (스승님이 양손으로 크기를 가늠해 보이시다) 그것은 심은 지 5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었어요! 5년이나 되었는데도 겨우 저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여기저기 누렇게 뜬 데다 줄기도 저 꽃의 가지만 했으니까요. (스승님이 앞의 꽃을 가리키시다) 그래서 나는 “5년이라니, 아마 자라지 않는 이상한 식물인가보다” 하고 말하고는 그 나무에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차(茶)나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나무에 주었지요. 차를 마실 때면 차의 절반은 그 나무 차지였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나무가 자라나 매우 커졌어요. 나무의 가지가 너무 자라 방 전체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는 내 방

이 아닌 다른 방에서 자야 했지요. 그 나무는 원래 저만한 작은 화분에 있었어요. (스승님이 화분을 가리키시다) 잎사귀도 반은 누렇게 반은 갈색으로 떠 있었지요. 그러던 것이 너무 자라서 나는 가지의 일부를 잘라 보이는 대로 다른 화분이나 컵, 병 등에 심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심은 것도 자라났지요. 얼마 후 그것들이 자라 방 두 개를 차지하게 되어 나는 또 다른 방에서 자야 했어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가지를 잘라야 했지만 더 이상 심을 화분이 없어서 다 자란 나무는 밖으로 옮겨 절 앞에 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했지요. 공간이 없어서 앉아서 자야 했으니까요.

실제로 나는 앉아서 잤습니다. 그 당시 나는 밤새 명상하고 지금보다 더 성스러웠습니다. 믿어주세요! (스승님 웃음) 사실 우리는 함께 성장했어요. 나는 명상을 했고, 나



무들은 물과 차를 먹고 자랐던 것이지요. 그러자 주지스님이 내게 어떤 비료를 주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비료라니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내게 돈을 주지 않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비료를 삽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당시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절에서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었지만, 난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주지스님도 내 말을 이해했지요. 얼마 후 그 스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지스님이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겠어요? 그 나무에 대해 주지스님이 내게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은 뉴욕에 없었거든요. 그들은 내게 “우리 스승님께서 당신은 사랑이 충만해 나무들이 빠르고 크게 자란다고 하시더군요” 하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이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유전자 변형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니까요. 세계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이윤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아마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적으로 교묘히 이용되어 그 의미가 손상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동물 유전자를 주입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했고, 이는 결국 사랑의 결핍을 초래하게 되었지

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전자 변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변형된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만족스럽지 못하니까요.

나는 많은 음식을 먹어 보아도 좋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겠어요. 차린 음식 중 하나만 맛보면 다른 것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요새 먹는 음식 대부분이 아무런 맛이 없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지요. 정말 가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맛이 원래 이렇게 맛있어야 하는데!” 하고 말하지요. 사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대부분은 먹을 수 없습니다. 보기도 좋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최근 몇 년 간 나는 음식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배고프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하루 종일 굶었다가 처음 음식을 먹게 되어도 내겐 쓰레기처럼 속이 거북하고 불편할 뿐이지요. 전혀 먹을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저것 뒤적이다 말게 되죠. 많이 먹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많이 먹어도 만족스럽지 않고 그저 포만감과 거북함을 느끼게 되니까요.

제자1: 이젠 과학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알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최근 몇 년 동안 모두들 아스피린을 찾는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스승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승님: 이런 현상이 사랑이 결핍된 음식 때문이라고 하면, 명확하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두통을 느끼거나 어지럽고 구토증이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염 때문이거나 ‘너무 잠을 못 자고 과로해서’, 혹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사람들이 두통을 앓는 일이 잦아보니 그 원인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제자2: 동수들 중에는 유기식품으로 바꿨더니 훨씬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승님: 맞습니다.

제자2: 명상도 더 잘 된다고 하지요. 저도 순수한 음식을 먹으면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명상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제자2: 때때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불쾌해지곤 해요.

스승님: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비행기를 탈 때면, 대개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먹으려 해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아요. 음식처럼 보일 뿐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 비행기를 타는 동안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거나 명상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음식도 좋아 보이고, 공손한 웨이터에 모든 것이 고급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나도 속이 헛헛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잔뜩 먹은 것 같기는 한데 많이 먹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요. (스승님 웃음)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을 좋아해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일한다면 음식 맛이 훨씬 좋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 상태가 다르면, 나 역시 다르게 느끼지요.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전혀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이 좋으면 식욕이 당겨 더 많이 먹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맛있는 식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듯하게 잘 차려졌어도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운이 좋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지요. 그건 시장한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배가 너무 고파도 맛이 없는 건 없는 것이니까요.

제자2: 신선한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밀가루의 경우, 단 몇 시간의 차이로 해도 금방 빵은 것이 훨씬 영양이 많다는 것이지요.

스승님: 예, 맞아요. 인도에서 차파티(인도의 납작한 빵)를 먹었을 때가 여기에서보다 더 맛있었어요. 거기선 땀물에 갈아서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소량으로 밀가루를 내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집집마다 하루나 이틀 또는 한 끼나 두 끼 분량만 만들지, 한 번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이 정말 좋지요.

또 이탈리아의 스파게티는 이곳의 그 어떤 피자 집에서 먹은 것보다 차이가 납니다. 여기선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기가 쉽지 않지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싱가포르에는 내가 즐겨 찾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그곳에서 피자를 먹는데, ‘마가리타’라는 얇은 피자를 2개나 3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얇고 작지만 아주 맛있지요. 내가 보기엔 마가리타가 다른 곳의 피자과 같아 보이는데도 다른 곳에서는 왜 그만큼 맛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어떻게 만드나요?”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요리사는 “오늘은 피자를 만들지 못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이유를 묻자 아직 밀가루

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품질 좋은 밀가루를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는데, 그것이 다른 곳과는 달리 늘 같은 품질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유기농을 하거나 특별히 좋은 밀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밀가루를 수입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가 없으면 마가리타 피자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발견한 차이점이에요.

내가 결혼해서 독일에서 살 때, 내 전 남편과 나는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 땅바닥으로 뻗어 나갔지요. 아무리 많은 막대를 세워도 소용없었어요. 토마토도 아주 많이 열렸고 맛도 정말 좋았어요!

어렸을 때 재미로 채소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토마토도 키웠는데 맛이 굉장히 좋았지요. 지금까지 그만큼 맛있는 토마토는 먹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요새 토마토는 그 때 토마토보다 훨씬 크지만, 맛도 향기도 없습니다. 사람을 끄는 토마토만의 맛이란 것이 있지요. 어떤 토마토는 시원한 물과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아마 사랑이 담겨진 유기농으로 키워졌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먹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여러분이 먹는 것은 여러분의 명상에 영향을 주기 때



진동의 비밀

칭하이 무상사 / 1987. 7. 21. 포모사 신디엔 (원문 중국어)

식물들의 감지능력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식물
을 태울 때 잎과 줄기의 진동을 측
정했는데, 식물들이 공포심에 매우
격렬하게 진동하는 것을 발견했지
요. 또 다른 실험에서 식물을 사랑
하는 선량한 사람을 식물 곁에 가
게 했더니 매우 좋아하였고, 식물
을 싫어하거나 나쁜 사람이 오면,
격렬하게 떨며 환영의 진동이 아닌
거부의 진동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거부의
진동수와 환영의 진동수를 모두 실
험했고, 이 연구로 식물 역시 감각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
래서 나무와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얘기를 하자면, 나는
어릴 적부터 나무와 식물을 좋아했
습니다. 출가하기 전 우리 집에는
큰 정원이 있었지요. 푸른 잔디밭
이 있는 정원은 녹색식물로 가득했
어요. 아주 아름답고 편안해서 나
는 매일 물을 주며 식물들을 잘 돌
봤습니다. 그러다 누가 그들을 상
하게 하면 몹시 화가 났는데, 그들
의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져
견디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함부로 식물을 다치게 해서
는 안 됩니다.

사랑은 기적을 창조한다

내가 진리를 찾아 인도에 머무를 때, 내가 살던 아쉬람에는 사막에서 자
라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잎은 온통 가시투성이였지요. 하지만 사
람들이 마구 잘라 놓아서 뿌리를 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식물은 잎의 밑
부분을 잘라 물에 담가 놓으면 뿌리가 나기도 하지만, 잎 위를 자르면 자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막의 식물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잘라져 있었습니니다. 그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보
이자 아무도 심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쉬람의 한 동수가 “당신이
한 번 키워 보세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권했습니다. 나는
“좋아요, 한 번 해보죠” 하고는 그것을 흙에 심었는데, 내가 거기 머무는
동안 그 식물은 계속 살아 있었어요. 뿌리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살아서 싹
을 틔우고 자라났지요. 나는 그것이 기쁘게 살아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가 매일 거기에서 명상하고 오물을 외웠으므로, 그 식물도 영향을 받았겠
지요. 나쁜 기운을 느끼지 않았기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한 중국 사찰에 머물렀습니다. 원래 거기에는 화분에
심은 식물이 없었어요. 그냥 누렇게 뜬 화분이 한두 개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았고 병든 것처럼 보였지요. 아마 영양이 충분치 않
았거나 아무도 물을 주며 돌보지 않아서 그랬을 겁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물을 주었어요. 매일 물을 주었더니, 2개월 후에는 엄청나게 자라나
서 내 방은 화분으로 가득 차 더 이상 앉을 자리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당시 나는 식물에 줄 비료를 살 돈도 없
었고, 또 전문적인 원예가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사랑 뿐이었어요.
매일 명상하고 물을 주고 별다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식물은 매일 잎
이 번성하여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엔 너무 커져서 내가 떠날 때 나는 그
들을 돌볼 사람이 없을까 걱정되어 신도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사람들은
좋아하며 그것들을 즉시 가져갔지요.

거기에는 또 수년이 되었어도 별로 자라지 않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
데, 내가 온 뒤 밑둥치에서 가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키가 크고 높게
자랐습니다. 내가 떠날 때, 그곳의 주지 스님은 “이 나무는 너무 커서 줄 곳
도 없는데, 당신이 가버리면 죽겠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때 “앞으로 이
년은 더 살 겁니다”라고 한 내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년 뒤 내가 돌아
왔을 때 그 나무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내가 너무 늦게 돌
아온 거죠. 주지스님은 내게 나무가 얼마 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 “당신이 떠난 지 이 년이 되지 않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때 나는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 나무는 그래서 정말 이 년 뒤에 죽은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에게도 감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매일 돌봤으므로, 그들은 매우 크고 싱싱하게 자랐습니다. 잎이 너무 크게 자라서 다른 어느 식물과는 차이가 났지요. 나는 특별히 한 것 없이 매일 물만 주었습니다. 때로 차를 마시다 남으면 주고, 바깥에서 흙을 파다 주기도 했지요. 나무들이 점점 크게 자라서 더 많은 양분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엄청나게 커져 버렸지요.

나쁜 마음은 파괴를 가져온다

그 무렵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무거운 업장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구 스님을 데려다가 자기 집의 ‘재산’으로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지요.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래도 왔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와서 화분을 놓아두는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 때는 선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식물들을 내 방과 가까운 바깥이나 다른 방에 두었습니다. 그녀가 거기에서 하룻밤만 잤는데도, 내가 이튿날 일어나 보니, 많은 잎사귀들이 커피 색으로 변해 죽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불로 태우거나 아니면 불에 너무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정말 탄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아서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 잎사귀들을 모아 주지스님에게 보여주자, 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산소가 부족했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는 이해하지 못 했으므로 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를 흔들며 잎사귀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죠.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지! 나는 매일 같이 잤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녀가 하룻밤만 잤는데 식물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지만, 하룻밤만에 우리 식물들이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기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잤지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 수 때문이 아닌 것이죠.

악한 마음이 너무 지독하고 업장이 너무 무거우면 식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식물도 그토록 영향을 받으니,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더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스승들이 산을 찾아 들어가고, 그 제자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떠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승일수록 산을 내려가고 싶어하지 않죠. 도시에 산다 해도 역시 자신을 숨긴 채, 이리이러한 큰 스승이 여기 살고 있다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질수록, 스승들은 더욱 숨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숨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

개의치 않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숨으려고만 하고 노출되는 걸 싫어합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을 태워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자장은 무서운 것입니다.

수행은 중생을 이롭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채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채식을 하면서도 악한 생각을 끊지 못한다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상을 해야 합니다. 석가모니불은 “악한 이와 사귀지 말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수행의 초심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초심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엔 아직 수행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것으로도 도움이 되므로, 수행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조용히 오불을 외우면,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됩니다. 오불을 외우는 것이 일상화되면 어디에 가든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이로움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이 그들을 몰라도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불을 외우는 힘은 이처럼 큼니다! 더 많이 외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면, 전 세계, 전 인류의 수준이 높아져 수행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진보하게 되지요.



시

칭하이 데이 스승님께 바치는 기쁜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엔젤라 배틀 사저 (원문 영어)

어느 기쁜 날,
육체더미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를 발견한 그녀는
비뚤어진 우리 마음의 분별의 산을 뚫고
끊임없는 광채로 번쩍이는 보석을 다듬어 내셨지요
당신이 드러낸 보석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풍요로움에 가슴이 벅찼지요
머뭇거림도 한순간
당신의 부드러운 오오라에 안심하곤
앞으로 내달려 그 보석들을 차지했지요

이렇게 기쁜 날
잃어버린 왕국을 자랑스럽게 되찾은 고대의 왕족처럼
당신은 우리를 환희의 왕좌에 앉히셨네
그러나 그 밤,
우리의 대관식의 대가로
당신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남몰래 흘리셔야 했지
고맙게도 새벽에는 승리의 빛방울이 소리없이 내리고
우리는
당신의 희생에 미진하나마
이 날을 당신을 위한 특별한 날로 선언하고
모든 기쁜 날이 당신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시

시후를 추억하며 사랑하는 스승님께 드리는 시

방랑자 징링 - 중국 여행 중 (원문 중국어)

시후의 달밤에 취했다

천상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옹긴 자 누구인가?

울퉁불퉁한 바위들과 졸졸 흐르는 샘물

천상의 창조물 속에서

소나무와 대나무 숲 아래

삼매 속에 노니는 자 누구인가?

부처는 이 감로수를 맛보며

그 달콤함에 목을 달랜다

모든 것이 흘러 내려오는 곳, 천국

갠지스강이 시작된 곳 ……

푸른 풀밭 내 잠을 채워주는

이 향기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 가슴 깊은 곳에

무름도원 하나 있다

솔바람이 속삭인다

그녀의 사랑에 침묵의 눈물로 답하는 나

빛을 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

은하수 너머 고향으로 데려가길 기다리며 ……

보라!

어두운 밤, 야생 거위들에게

이슬과 빛의 축복을 내려주는

자비로운 자 누구인가?

들어 보라!

끼꼬리와 매미와 함께

그 명쾌한 소리를 내는 칠현을

연주하는 자 누구인가?

가장 위대한 음악은 들리지 않는다

노자의 말이 들려온다

구름을 목도리로 달을 베개 삼아

나는 천국의 거처를 찾는다

싱싱하고 푸른 풀밭 높이

높고 당당한 누각들이 줄서 있다

오색 구름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누가 감히 그것을 짓밟겠는가?

곤충과 물고기, 새와 네발 짐승

모두가 조화롭게 살고들 있다

이 인간 세상에 천국이 없다고

감히 말하는 자 누구인가?

추신 : 오랫동안 집을 떠나온 방랑자는 종종 시후를 그리워하며 꿈속에서도 스승님을 뵈기를 희망했다. 행복할 때는 스승님께 감사드리고, 힘든 때는 스승님의 말씀을 떠올리곤 했다. 이 시는 2001년 중국 징링(金陵)의 금월루에서 쓴 시이다.



춤추는 화초

리 사형, 중국 본토

어느 날 오후 나는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꽃시장에 들렀다. 그곳의 한 가게에 있는 “춤추는 화초”라는 특이한 이름의 화분이 내 눈을 끌었다. 그건 정말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다. 우리는 가게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 화초가 중국 남부의 어울락, 캄보디아, 미얀마의 접경지역인 윈난(雲南)에서 왔으며, 1999년 쿤밍(昆明)에서 있었던 세계 조경원에 엑스포에서 상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 화초는 지극히 평범한 모양으로 알파파와 많이 흡사했다. 위쪽에 큰 잎 2개와 아래의 작은 잎 2개 등 잎 꼭지마다 4개의 잎이 달려 있는데, 음악, 특히 민속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고 흔들렸다. 2개의 작은 잎은 좌우, 위아래로 부드럽게 흔들려, 마치 선녀가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 했다. 이때 우리는 신의 이 놀라운 창조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만물은 소리(진동)로부터 생겨난다”는 석가모니불의 말씀과 스승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런 화초도 속세의 음악을 알아듣는데, 우리 인간은 보다 높은 소리에 얼마나 더 집중하여 자신을 영적으로 고양시켜야 하겠는가! 우리 사형사저들이 칭하이 스승님을 따라 관음법문을 수행할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을 소중히 여겨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천국으로 되돌아가길 희망한다.

또 굵었군!

코니 에카트 사저,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원문 영어)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명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일깨워 주곤 했다. 나는 명상 중 수시로 이 점을 일깨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명상하다 보면 어느 새 등이 굽어있곤 했다.

한 번은 명상 중 똑바로 앉아 명상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는 비전을 본 적이 있었다. 비전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몇 사람들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중 가운데 있는 존재가 망원경으로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내 가까이 다가온 망원경 렌즈를 통해 바라본 렌즈 속의 그의 큰 눈은 내 전신을 위 아래로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 때 내 몸은 또 굽어있는 상태였다! 처음으로 그걸 자각한 나는 크게 웃으며 재빨리 등을 곧게 폈다.

스승님,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신의 인배

관음사자



1998년 5월 24일 스승님은 멕시코에서 입문식을 하신 후 입문식에 참가한 제자들과 함께 명상을 하시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코스타리카로 가시기 위해 공항으로 떠나셨다. 수속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스승님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며 내게 멕시코에 남아 여러 지역의 단체명상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멕시코에 남게 되었다.

나는 텍스판의 연락인에게 그 날 오후 단체명상에 참석하겠다고 알렸다. 내가 텍스판을 우선 고려한 것은 그곳 동수들은 모두 최근에 입문하여 오래된 동수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텍스판에 도착했을 때, 모든 동수들이 나를 맞이하러 역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무척 놀랐다. 내가 스승님과 함께 떠날 줄 알았던 그들은 내가 여기 머무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으며,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연락인 집에 단체명상을 하러 갔다.

그 날 저녁, 나는 입문식과 수행일지에 이미 나와있는 명상 지침사항을 설명해 주고, 동수들의 질문을 받았다. 답변을 모두 마치자 한 사저가 내게 와서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어제 밤에 명상하면서 내면의 스승께 수행일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5불을 잊어버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스승님의 화신이 나타나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오늘 당신이 단체명상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될 줄이야. 정말 놀라워요!”

최고의 피로 회복제

1998년 10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견본책을 구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멕시코에서 스페인으로 된 견본책자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 동수들과 보스턴에서 온 동수들이 그 비용을 충당하고 교정은 한 동수 부부에게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교정작업은 여러 날 늦어졌고, 다른 도시로 가야 했던 나는 그들에게 교정을 이틀 안에 끝마치도록 요청했다. 타이핑과 교정을 하기 위해 그들은 회사를 마치자마자 센터에 왔다. 다음 날 아침에도 센터에 있는 걸 보고 나는 사형에게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워 피곤하겠군요!” 하고 말을 했다. 하지만 그는 영적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교정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며 지난 밤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아내가 교정을 보는 동안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얼마 후 아내는 잠이 들고 혼자서 타이핑을 하게 되었다. 간신히 눈을 뜨고 일을 계속 하고 있을 때, 그는 바로 옆에서 웃으며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스승님을 보았다. 그리하여 지복에 가득 찬 그는 졸음을 떨치고 피곤함도 잊은 채 밤새도록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깨달은 스승의

나는 스승님이 히말라야에 계실 때 그곳 거처에서 반시간 거리에 있던 도서관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스승님은 매일 아침 간단한 마른 음식을 준비해서 도서관까지 걸어다니곤 하셨다. 때때로 피곤해지면, 길가의 적당한 곳에 천을 깔고 차파티(인도의 납작한 빵)를 꺼내어 놓고, 길가에서 뽑은 야채를 눈을 녹인 물로 씻어 그 위에 소금을 뿌려 식사 준비를 하곤 하셨다. 이렇게 차파티와 야생 야채, 소금으로 만든 샌드위치는 스승님의 풍성한 식사거리가 되었다. 그러다 목이 마르면 해 눈을 녹여 드시곤 하셨다. 스승님의 머리 위에는 흰 구름이 몇 점 떠있는 파란 하늘이 있었고, 그 하늘은 높은 산봉우리들을 더욱 푸르게 하였으며 산꼭대기의 모자처럼 얹혀있는 눈을 더욱 하얗게 보이게 했다. 또한 스승님의 발 밑에는 땅 밑에서 자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작고 파란 새싹들이 있었고, 멀리서는 산길을 따라 힘들게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신을 찬양하는 진실한 노래 소리가 희박한 공기를 타고 흐르고 있었다. 스승님이 우리를 위해 그 찬가를 콧노래로 불러주시면, 우리는 스승님의 은방울 같은 달콤한 목소리에 취해 우리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인지 천국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스승님은 가끔 이야기나 우화들을 통해 우

리를 가르치신다. 그 중 하나는 러시아의 짜르(황제) 피터 이야기였는데, 그는 조선 기술을 배우기 위해 평민으로 변장해 유럽으로 갔다. 그 곳에서 그가 추방했던 러시아 범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돌아갈 조국도 친척도 없었으며 생활도 몹시 어려웠다. 그들을 도와 함께 일하다가 공부를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갈 때가 되자, 황제는 그 죄수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다. 그들은 물론 돌아가고 싶지만 황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제는 그 범죄자들에게 “나는 황제의 친구이니 나와 함께 돌아가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자신도 우리와 같은 평민 처지이면서 무슨 수로 황제의 용서를 구한단 말인가?” 하며 황제의 말을 불신한 채 계속 남아있기를 고집했다. 반면 “좋은 사람같은데 우리를 속일 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한 다른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수세기 동안 이와 비슷한 일들이 큰 스승들에게 일어났다. 중생들이 무지와 깊은 선입견에 가려있었기 때문에 스승들은 자신이 신이 아닌, 신의 친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한 여(女) 수행자가 명상 중에 매우 높은 경지에 도달하여 그녀의 스승이 신인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삼매에서 깨어나자 스승에게 불평을



종재에 감사하며

했다. “스승님은 평범한 일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 스승님이 바로 신이었어요! 스승님은 저를 계속 속이셨군요.” 그녀의 스승은 대답했다.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너 믿지 않았을 거야!” 부지런히 명상을 해야만 우리는 스승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스승의 위대함이 밝혀지면, 스승에게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 많은 제자들이 따르던 유명한 스승이 있었다. 그로 인해 그는 그를 불신하는 다른 스승들로부터 질시를 받아 곤란을 겪곤 했다. 어느 날 인도의 왕자가 병으로 죽자, 왕은 모든 유명한 의사들의 도움을 구했으나 왕자를 되살리지는 못했다. 사악한 무리들은 왕에게 이 깨달은 스승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그 스승은 그들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정중히 거절했다.

“당신의 신이 가장 높고 당신은 그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 당신이 그 신에게 기도하면 분명 우리를 도와줄 것이 아니요!” 깨달은 스승들은 보통 신통력을 드러내지 않는데, 이 스승은 그것을 드러낼 것을 계속 강요 당했다. “좋습니다. 내가 하든 안 하든 당신들은 나를 죽일 테니 하지요!” 하고 그 스승은 신에게 기도했다. “이 아이를 당신의 자비와 사랑의

힘으로 되살리소서!” 하지만 왕자가 여전하자 왕과 모든 사람들은 그 스승에게 그의 힘을 증명하도록 계속 강요했다. 결국 그가 “이제 내가 명하나니 그대는 일어나라”고 말하자 왕자가 소생했다. 사람들은 분개하며 왕에게 이간질을 했다. “폐하, 저 자의 오만함을 보십시오. 신의 힘으로도 왕자님을 살리지 못했는데, 저 자의 말 한 마디로 왕자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자기가 신보다 위대하다고 알리는 것으로써 신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마땅히 처형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처형할 것을 주장했고, 그 스승은 살점을 하나 하나 베이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

깨달은 스승들은 모두 큰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 그들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내려와 죽음의 상황에 자신을 내던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석가모니불은 모함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했으며, 다른 많은 큰 스승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그래서 깨달은 스승들이 이 땅에 와도 우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 그들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 혹독한 시련과 무거운 짐을 지신 채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 배울 기회를 주신 용감하신 우리 스승님께 더욱 감사할 뿐이다.

글 와일드 그래스



하레 칭하이, 청정대해

조세프 페어 사형 /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영어)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의 강연에 관한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가야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에 스승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저는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갖고 강연을 고대했습니다. 저는 선지식(善知識)을 기대하며 스승님이 나타나시길 기다렸지요.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사람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입니다. 요즘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주장하니까요.

스승님의 강연 동안, 당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서 다음 날 새벽 4시에 집에 도착했지만(그런 밤 시간에는 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으니깐요), 텅 빈 거리에서도 두렵지도,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입문은 정말 굉장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오 불을 외웠고 그 때부터 계속 영적 지복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전 아주 오랜 시간 당신을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당신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말이지요) 이제 스승님은 제 삶에 계시지만, 전 언제까지나 스승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당신이 매우 그리울 겁니다. 제가 견본책자를 몇 번이고 읽으며 느낀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즉각 깨닫는 열쇠' 1권을 읽었을 때는 눈물도 많이 흘렸지요. 책을 읽는 동안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에 가득 차 책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어렸을 때는 교회에 다녔지만,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전에는 이런 영적 지복을 경험한 적이 없었지요. 1990년 이후 몇몇 스승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입문식 중이나 후에 제게 이런 놀라운 느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무신론적 세계관에 비하자면 훨씬 좋은 견해를 갖게 해주었죠. 수 년 동안 저는 신께 제 질문에 대한 신의 답변을 제가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사고방식과 막힘 없는 언변, 도발적인 질문들에 대한 스승님만의 응답 방식을 좋아합니다. 스승님이 디자인한 옷은 굉장히 우아하고 색깔도 잘 어울리지요. 스승님이 부다페스트에서 입으셨던 옷과 제가 비디오와 사진에서 본 옷들은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스승님 역시 육체적으로나 영적(생각)으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저는 사랑과 지식, 선량함, 그리고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를 갖춘 스승님과 같은 배우자를 얻고, 저 역시 스승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정말 스승님을 만나게 되어 행복합니다. 제 아파트에는 당신의 사진이 걸려 있고, 전 스승님의 목걸이를 하고 있지요. 스승님의 목소리는 멋지고 온화하며 교양이 넘치지요. 스승님이



녹음하신 '할렐루야'는 당신 자신을 노래하신 건가요?

스승님께 송가를 한 편 헌정하고자 합니다.

하례 칭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청정대해시여
하례 칭하이, 당신을 숭배합니다, 생명의 물이시여
하례 칭하이, 당신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빛이시여
하례, 하례, 칭하이, 칭하이, 하례, 하례

(주: '하례'는 신의 기쁨의 힘을 뜻함)

천 바로 이것이 당신과 제가 동일체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상적 상태이고, 이상적 연결이며, 영혼의 연결이기도 하지요. 마치 첫사랑처럼 아무런 이기적인 이해타산이 포함되지 않고 더 없는 행복이기도 하죠. 저는 이 세상에 서, 그리고 다음 5세계에서도 우리의 연결이 지금처럼, 아니 더욱 좋은 모습으로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이 함께 하시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당신의 제자, 조케프 페어 올림

..... 지혜어록



매순간의 중요성

칭하이 무상사 / 1991. 9. 8.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우리가 선량하며 신구의가 매순간 깨끗하고 도리에 맞는다면,
시방삼세의 모든 불보살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모든 천사와 천룡팔부, 호법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신구의가 청정하면, 온 우주가 우리 것으로
우리를 위한 훌륭한 왕좌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만 단 한 가지라도 부적절한 마음을 품는다면,
온갖 장애물과 나쁜 기운들을 스스로 끌어당겨 고통을 겪게 됩니다.





포모사 소식 수륙양용 구조대의 훈련기



참가자들이 배낭을 싸는 법을 배우고 있다



달리기는 신체능력을 기르는 한 교육과정



매듭 묶는 법과 사용법에 대한 설명



과정 중 인터뷰 방법과 사진술을 비롯한 뉴스 인터뷰 교육이 진행되었다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전세계에서 수많은 구조활동을 오랫동안 수행해왔다. 그러나 일부 재해지역 당국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의 접근만 허용하여, 이 경우 동수들은 밖에서 제한된 구조활동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포모사 동수들은 자격증을 갖춘 후 유사시 보다 완벽하고 더 나은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구조활동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편 지방자치 단체의 관련법 및 규제조항, 정식 자격증 요구 등을 충족시키는 공식적인 자원봉사대를 조직하는 것도 시급했다. 이에 포모사 동수들은 산악지형에서의 구조활동을 위한 등하반에 대한 기술, 라디오 교신, CPR(응급 호흡조치법), 다이빙 등을 포함한 구조대 교육과정을 계획했다. 초빙된 과정별 전문 교관들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각 과정을 지도했다. 참가자들은 각 과정을 마친 후 시험을 거쳐 관련 자격증을 얻게 되었다.

스승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조직한 구조활동보다는 남들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조대는 수륙양용의 구조능력과 설비를 갖추 계획이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간 포모사의 자연재해의 80%는 폭우와 태풍, 흙과 돌의 유실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재난구조는 수륙 양쪽에 중점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구조대원들이 위에 언급된 모든 자격증들을 갖추길 기대한다.

교육 과정 중에는 저널리즘 교과캠프도 개설되어 뉴스 인터뷰 기술과 동적·정적 사진 기술, 녹음기술을 다루었다. 이 캠프가 계획된 것은 과거 재난이 발생하면 동수들이 재난구조에만 노력을 기울여 사진 및 취재작업이 간과되었고, 정부와 학술단체, 여러 관련매체에서 기사 및 연구자료를 위해 구조관련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스승님의 사랑의 활동을 온전히 기록하여 사람들이 스승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길 기대해 본다.



균형 훈련



홍콩 소식

한 가족인 세계

근래 세계는 일련의 자연재해를 겪었다. 이를테면 올해 초 중국 중북부 내몽고는 눈보라와 모래바람으로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수직 하강하여 많은 가축들이 죽고, 1백 60만 명이 재해를 입었다. 음식과 따뜻한 담요, 옷 등이 다급히 요청되었다. 1월 26일에는 인도 서부에서 3만 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시무시한 지진으로 수많은 부상자가 생겼으며 가족이 파괴되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급한 원조가 필요했다.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홍콩 동수들은 이재민 돕기 모금활동을 펼쳤다. 동수들은 희생자들이 힘든 시기를 어서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기금을 전달했다. 모금의 일부(홍콩 달러 3만 불-미화 3,800불)는 중국 홍콩 적십자 구호재단에 전달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은 선명회의 인도 지진 구호재단에 전달되었다.

스승님은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인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입문자들은 이 세상을 정화하는 데 있어 신실한 명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성금 3만 달러 (홍콩달러) 기부에 대한 홍콩 적십자사의 영수증



성금 1만 2천 달러 (홍콩달러) 기부에 대한 선명회(宣明會)의 영수증

2001년 1월과 2월 중 포모사 극빈 가정 돕기
지출내역 (단위: NT 대만 달러)

장소	2001년 1월		2001년 1월		부록
	가구수	금 액	가구수	금 액	
지 룡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8	25,000	8	23,000	2
타 오 웬	1	2,000	1	2,000	3
신 주	1	3,000	1	3,000	4
타이베이	3	9,000	2	6,000	5
타 이 쥑	8	26,000	7	23,000	6
난 토 우	6	23,000	6	23,000	7
치 아 이	6	13,000	1	3,000	8
타 이 난	1	4,000	1	4,000	9
까 오 평	3	9,000	2	5,000	10
타 이 똥	4	10,000	3	8,000	11
평 후	2	4,000	2	4,000	12
화 렌	2	6,000	1	5,000	13
월별소계	46	136,000	36	111,000	
총 합계	NT \$24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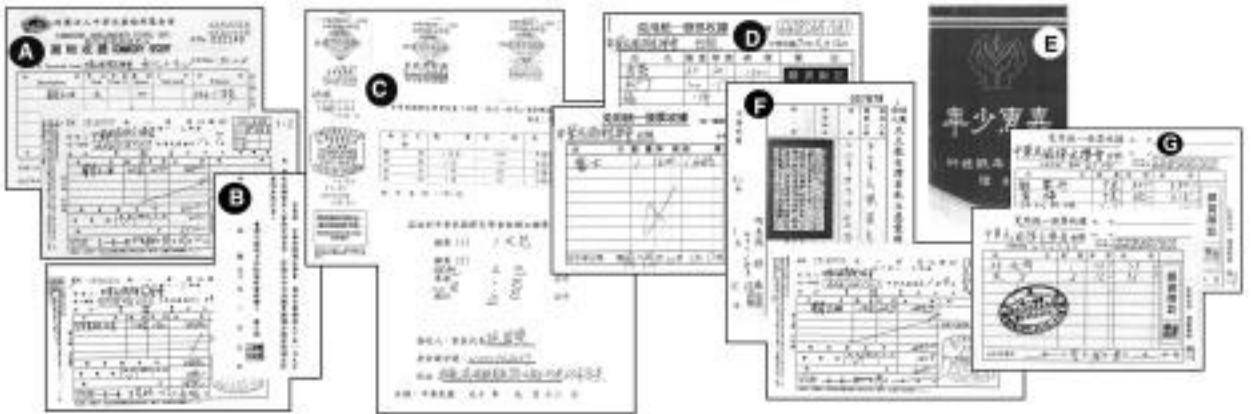


표 2: 20001년 1월과 2월 동안 포모사 자선활동 지출내역 (단위: 대만 NT달러)

장 소	날 짜	내 역	금 액	부 록
창 화	2001.01.08	창화 가정 돕기 센터의 어린이들 방문, 음력설 찬조금 전달	4,620	A
화 련	2001.01.09	화련 지검서 소속 가석방자들에게 음력설 찬조금 전달	6,933	B
창 화	2001.01.12	따룬 마을의 지진, 화재, 어린이 재해를 위한 응급구조 세미나	785	C
타 이 난	2001.01.17	타이난 소년 감호소 방문, 영성세미나와 오락 프로그램, 음력설 위문품 전달	4,300	D
		소년 감호소에서 ‘청소년에게 사랑을’ 깃발 증정		E
창 화	2001.01.18	카톨릭 장애 학교 학생들에게 음력설 찬조금 전달	3,000	F
창 화	2001.01.21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 따룬 도로 청소	1,965	G
미아오리	2001.02.11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시후향사무소에서 주관한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작업 동참(자원봉사)	0	
		총 계: 41,603 NT달러		

표1, 표2에서 보이듯이 2001년 1월에서 2월까지 포모사 자선활동 지출금액은 총 288,603 NT달러에 이른다.

(미화 약 8,935.08 달러)



천의와 천상의 보석에 숨겨진 메시지

엔 리 사저 / 포모사 쥬



황금 물방울이 수놓인 옆선이 트인 보라색 드레스 - 엔 사저가 아들의 제안으로 입어보자 너무 잘 어울렸다! 모두들 4살짜리 소년의 탁월한 안목에 놀라워했다

지난 7월, 천의와 천상의 보석 순회 전시회가 신주의 한 동수 집에서 열린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난생 처음으로 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컬렉션을 사석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된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행사를 기다렸다.

기대 속에 2주가 흘러갔다. 전시회 하루 전날은 비바람이 몹시 불었던 걸로 기억된다. 막 일손을 놓고 쉬다가 심신이 노곤해질 즈음 잠깐 졸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후의 장주 세 사람이 꿈에 나타났다. 와!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다. 한사람은 황금색 무늬가 든 보라색 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푸른 색 바지 차림이었다. 그리고 세번째 사람은 사각형의 기하학적인 무늬로 된 옷과 천상의 발찌를 하고 있었다. 뭔가 말할 듯 하더니 세 사람은 떠나갔다. 나는 깨어나서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 느낌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전시회에서 어떤 천상의 비밀이 드러날 것인지 궁금해졌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는데, 벌써 삼사 일째 내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날 전시회에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자 밖은 정말 눈부시게 화창했다. 상서로운 조짐이었다! 하늘이 우울한 기색을 벗어 던진 것은 신도 우리 순회 전시회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쁘고 귀여운 두 아이를 씻겨 옷을 입힌 후, 우리 셋은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내내 즐겁게 웃으며 노래 부르다가 전시장에 도착했다. 그 때 눈에 매우 낯익은 모습이 들어왔다. 접수하는 사람이 바로 꿈에서 우아한 천의를 입고 있던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갑자기 개구쟁이 아이들은

천의가 전시된 곳으로 나를 끌고 가서는 “엄마! 이게 제일 예뻐요. 엄마가 입으면 정말 예쁠 거예요. 이걸 안 사면, 엄마는 분명히 후회하실 걸요!” 하고 진지하게 얘기했다. 놀랍게도 그 옷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옷이었다. 황금색 문양이 든 보라색 옷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입어보자 내게 꼭 맞았다. 수선할 필요도 없어서 너무 신기했다. (내가 아가씨들처럼 날씬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세 벌의 천의가 현실에서 나타나자, 나는 마음속으로 설마 천상의 보석도 보이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석 코너에 들어서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그런 우연이 일어났던 것이다! 천상의 보석, 바로 꿈에서 내가 보았던 발찌는 아찔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디자이너의 지혜를 고스란히 표현해 내고 있는 정교한 세공의 발찌를 보고 있자, 가장 높은 세계에 이르는 길에 대한 스승님의 강연이 들리는 듯했다. 빛나는 보석들은 하늘의 영광과 존엄을 상징한 것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가보로서 그것을 구입했다.

전시장을 돌아보는 동안, 발랄하고 호기심 많은 유쾌한 두 아이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해 주었다. 이 두 댄서는 즉흥 무대에서 자신을 잊은 채 나비처럼 경쾌하게 춤을 추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복에 가득 찬 마음으로 나에게 유형 무형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준 신과 스승님, 꿈에서 본 세 명의 사자들과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사를 드렸다. 그 날 신은 내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다.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도 함께 나누길 바란다.





후기: 8월 초, 옌 사저와 그 가족들이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 사저는 갑자기 스승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파장이 전해져 그녀의 지혜안이 계속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다. 5분 후, 다른 방에서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천장에 고정된 팬이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옌 사저 집의 쪽마루에는 크기 2cm, 깊이 2cm 가량의 구멍이 뚫렸다. 만약 사저와 가족들이 그 방에 있었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옌 사저는 그제야 그 날 꿈속에서 이미 스승

님이 이 재난에서 그녀와 가족들을 구해내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꿈을 떠올렸다. 꿈속에서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방에 있고 아이들은 놀고 있었다. 세 명의 시후 장주들이 나타나서 천장 팬 밑에 각기 다른 지점에 서서 삼각형을 형성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 팬이 그대로 이 환상적인 삼각형의 마루로 떨어졌지만, 장주들은 조금도 다친 데가 없었다고 한다.

옌 사저는 스승님의 전지전능한 보호력은 정말 무소부재하며, 어디서든 우리를 늘 방패처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지상을 천국으로 바꾸자

칭하이 무상사 / 1992. 6. 18. 미국 뉴저지 센터 (원문 영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은 한층 더 예민한 경지로 고양되지요.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을 거칠게 다루는 조악한 수준에 마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나 필요에 민감한 것은 상대방에게만 이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매우 진보된 영혼이라는 걸 의미하기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좋은 거죠.
민감해지면 다른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그의 뜻을 이해하게 되며,
그건 우리가 아미타불의 서방세계의 차원에 도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전에서 “서방정토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려는지 완전히 이해한다” 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죽어서 그런 곳에 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상을 천국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을 버리고 다른 차원으로 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개선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고양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을 파괴시켜
이 세상을 더욱 안 좋게 만들게 되지요.





긍정적이 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황 지에환 사저/ 홍콩

2001년 1월 6일 천의와 천상의 보석 팀이 홍콩을 방문했다. 정말 드문 기회라 나는 꼭 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천의 부스에 들어서자 두 명의 동수가 반가운 웃음으로 나를 맞으며 보석을 걸쳐보라고 권했다. 나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다. 전시장을 살펴보는 동안 또 다른 사저가 와서 ‘긍정의 승리’라는 반지를 보여주었다. 난 그 반지가 너무 크고 화려해서 부유한 부인에게 더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고, 또 처음에는 그리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반지에 새겨진 뱀과 진주가 각각 부정적인 힘과 지혜를 뜻한다는 설명을 듣고는 한 번 껴보기로 했다. 사저가 내 손가락에 끼워준 그 반지는 정말 놀랍게도 내게 꼭 맞았다. 마치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다. 나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울을 보니, 반지는 내게 너무나 완벽하게 어울렸으며 나를 위해 빛나고 있었다. 반지가 이렇게 잘 맞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는 반지를 주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스승님이 천상의 보석을 디자인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의 고아한 품성을 재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 두뇌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장신구에 걸맞지 않다고 속이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내면의 스승과의 연결을 차단시킨다. 스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깨닫도록 도우신다. 스승님은 우선 우리가 그 ‘결과’를 얻도록 하신 후, ‘원인’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과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드신다. 스승님은 우리 동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용감하게 우리의 고아한 이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공을 들이신다. 긍정적이 되라,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결국 나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긍정의 승리’ 반지를 얻게 되었다.

..... 지혜어록 

단순한 사람들이 깨닫기 쉽다

칭하이 무상사 / 1991. 4. 9. 타오웬 국제공항 (원문 중국어)

여러분이 완전히 깨닫고자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빨리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이 많으며, 분별심이 많아 시비를 많이 가리고 승패를 크게 여긴다면, 진보가 느리다고 스승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자초한 번뇌니까요.



똑똑한 부인

칭하이 무상사 / 1996. 7. 19. 캄보디아 (원문 중국어)

남편이 돌아왔을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은 난처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죠.

“무슨 일이 있었소? 왜 그리 고민스런 표정이지?”

“미안해요. 당신 새 양복을 다리다가 바지에 구멍을 뚫어요.”

“괜찮아. 그거랑 똑같은 양복이 하나 더 있잖아.” 남편이 위로하자 부인이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 그 옷으로 이 양복을 고쳐놔어요.”



오해

칭하이 무상사 / 1996. 5. 16. 캄보디아 프놈펜 (원문 영어)



노부인이 슈퍼마켓의 두부, 토마토 코너에 갔습니다. 토마토와 두부를 고르려고 허리를 숙인 순간, 나이로 인해 허리가 아팠던 그녀는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요. 그래서 그녀는 “악!” 하며 여러분이 주방에서 쥐를 봤을 때처럼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카운터에 있던 판매원이 말했습니다. “저, 토마토가 너무 비싼 것 같으면, 호박 가격을 봐주세요.”

다용도 파리채

칭하이 무상사 / 1999. 10. 4.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한 어머니가 장에서 돌아와 차를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15살짜리 딸이 차를 이미 뽑아 놓은 걸 보곤 딸에게 물었습니다. “차를 여과기로 뽑았니?”

영국에서는 잘게 썬 찻잎으로 차를 마시기 때문에 차 여과기를 써야 찻잎을 걸러내고 찻물만 마실 수 있지요. 그러자 딸이 대답했어요.

“예, 찻잎을 걸러냈어요. 그런데, 여과기가 보이지 않아서 파리채를 썼어요.”

“어머나! 세상에! 왜 그랬어? 그걸 쓰면 어떻게 해!”

“엄마,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현 것을 썼으니까요. 새 건 쓰지 않았어요!”



발찌

이 발씨는 비밀스런 피안의 세계를 나타낸다. 비행기와 헬리콥터, UFO, 연꽃, 용, 불사조, 교회 종, 독수리, 하프 등은 영적 수행의 경지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발씨의 장식물은 한 개, 혹은 여러 개씩 원하는 대로 목걸이로 활용할 수 있다.



최첨단 DVD 정식 발매!

이제 스승님의 주옥같은 강연을
다국어로 선택해서 보십시오.

* 이 세상 너머의 신비 <영어판 23개국어 자막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어울락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태국어

* 사랑의 길을 걷다(스승님 소개) <영어, 중국어, 아랍어 판, 36개국어 자막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어울락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독일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말레이어, 몽고어, 네팔어, 노르웨이어, 페르시아어, 타갈로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리랑카어, 스웨덴어, 태국어, 터키어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영어판 중국어 자막>

641 최고의 사랑을 이 세상에 베푸자(제3부)
미국 로스앤젤레스 전삼
1998년 12월 16-18일

665A 마음 다스리기
터키 이스탄불 강연
1999년 11월 20일

672 모권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국제전삼
1999년 11월 28-30일

704 1999년 중추절 첫째 날 공연

미국 플로리다 센터
1999년 9월 25일 저녁

<영어판 어울락어 자막>

667 신을 위해 생명의 빛을 치켜들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강연
1999년 11월 25일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 Fax: (886) 2-87870873 / E-mail: wisdom@m2.dj.net.tw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